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23년 9월 27일(수)
소비자 물가정보서비스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02-774-4060

새롭게 도입된 알뜰배달(배민), 실속배달(요기요) 배달비 인하 효과 미흡 배달 서비스별 경쟁 가속화로 배달비 인하 더 지켜봐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 물가감시센터는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투명한 배달비 산정을 위한 소비자 감시 활동 차원에서 배달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게 되는 배달비를 주말 점심 12시 ~ 3시에 조사하였다¹⁾.

■ 배달앱별 최빈 배달비, 3km 이내 배달 시 쿠팡이츠 세이브가 가장 저렴 - 배달의 민족(묶음 배달) vs 배민(알뜰배달), 배달의 민족(묶음 배달)이 배달비 더 낮아

<표 1. 배달 거리에 따른 배달앱, 배달서비스에 따른 배달비 현황>

(단위 : 원)

거리 구간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묶음)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세이브배달)			
			한집배달		알뜰배달		가게배달		한집배달				실속배달	
			최빈	최고	최빈	최고	최빈	최고	최빈	최고			최빈	최고
2km 미만	2,500	5,700	3,000	6,000	2,100	2,800	2,000	6,000	3,800	3,800	2,000	2,500	3,000 (2,000)	4,000 (3,200)
2km~3km 미만	3,000	7,200	3,770	6,540	3,640	4,140	3,000	8,000	4,300	4,800	3,000	3,500	3,000 (2,000)	4,000 (3,200)
3km~4km 미만	2,000	6,900	5,310	8,300	3,840	3,840	3,000 / 4,500	10,000	6,800	6,800	4,500	5,500	6,000 (5,000)	6,900 (6,100)

* 주말 점심시간 기준

주말 점심시간의 배달요금 비교 결과, 2km 미만의 최빈 배달요금 중 배달의민족(묶음), 배민1(한집배달)과 배민1(알뜰배달), 쿠팡이츠는 7월과 동일하게 각각 2,500원, 3,000원, 2,100원, 3,000원이 가장 많았다.

3km~4km 미만의 최빈 배달요금 중 쿠팡이츠는 6,000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7월의 3,000원/6,900원과 차이가 있었다. 배민1(알뜰배달)은 3,840원으로 7월보다 100원 하락했다.

쿠팡이츠 세이브 배달은 2km 미만과 3km미만에서 모두 2,0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한편, 배달앱 플랫폼 업체가 주문중개와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하며 일종의 묶음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이들 서비스와 기존의 묶음 배달의 배달비를 최빈 배달요금으로 비교해 보

1) 본 조사는 서울 전 지역 25개 구 각 2개 동의 특정 주소지를 선정,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주말(9월 9일) 점심시간에 최소 주문액으로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을 이용하여 주문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를 조사함.

본 협의회가 조사한 업종은 짬수 월에 치킨, 분식, 한식(짬뽕 중심), 홀수 월에는 중식, 피자, 한식(국밥, 도시락 중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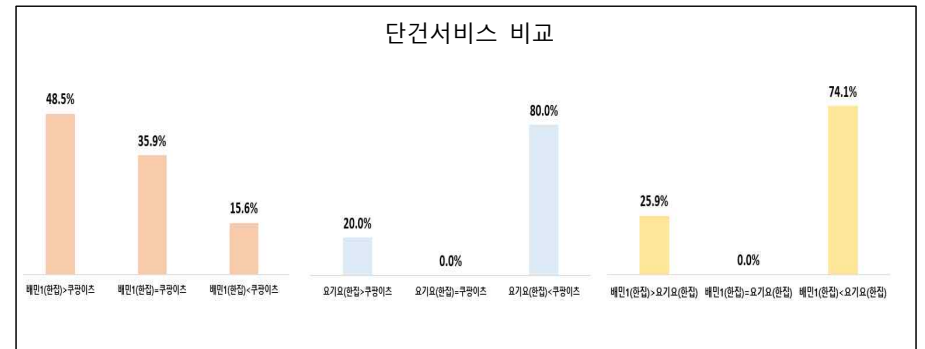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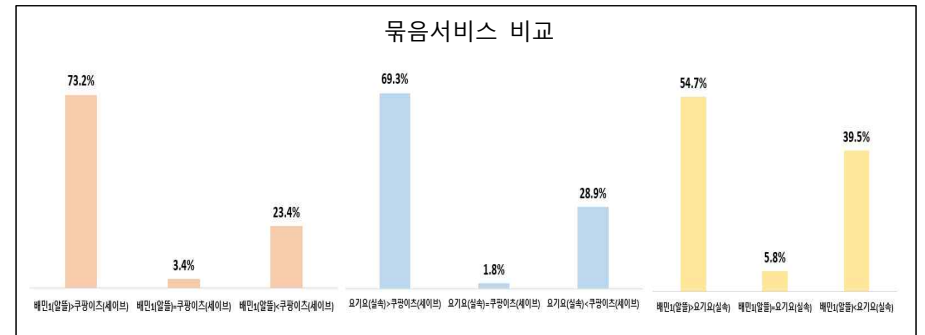
았다. 배달의 민족은 2km 이내의 배달 거리에서만 배민1(알뜰배달)의 최빈 배달비가 배달의 민족(묶음배달)에 비해 저렴하였으나 다른 거리 구간에서는 배달의 민족(묶음배달)의 배달비가 더 저렴하였다. 요기요는 3km 미만 거리에서는 요기요(가게배달)과 요기요(실속배달)의 최빈배달비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배달서비스로 인한 배달비 인하 효과는 미비하였다.

■ 묶음서비스는 배민1(알뜰배달)이 가장 비싸고, 단건서비스는 배민1(한집배달)이 쿠팡이츠보다 배달비 48.5% 더 높아

배달서비스에 따른 배달앱별 배달비를 비교해보았다. 묶음 서비스 중 배달의민족(묶음)과 요기요(가게배달)을 제외한 3가지 배달서비스를 비교한 결과, 배민1(알뜰배달)이 쿠팡이츠(세이브배달)보다 배달비가 높은 경우는 73.2%, 요기요(실속배달)이 쿠팡이츠(세이브배달) 보다 배달비가 높은 경우는 69.3%, 배민1(알뜰배달)이 요기요(실속배달)보다 배달비가 높은 경우는 54.7% 로 나타났다. 즉, 묶음서비스에서는 배민1(알뜰배달)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요기요(실속배달), 쿠팡이츠(세이브배달) 순이었다.

단건서비스에서는 배민1(한집배달)이 쿠팡이츠보다 배달비가 높은 경우가 48.5%로 나타났다. 배민1(한집배달)과 쿠팡이츠의 배달비가 동일한 경우는 35.9%로 나타났는데, 5월의 28.0%, 7월의 31.3%와 비교해보면 배민1(한집배달)과 쿠팡이츠가 점점 동일한 가격대로 가고 있는 추세이다.

<표 2. 배달서비스별 배달비 비교 결과>



■ 주말 점심시간 배달비 조사 결과, 7월 대비 9월 평균 16.9% 업체가 가격 올려

- 배민1(알뜰배달) 63.6%로 상승률 가장 높아

<표 3. 7월 대비 9월, 동일 업체 배달비 변동 비교 결과> (단위 : %)

	배달의 민족 (묶음)	배민1 (한집배달)	배민1 (알뜰배달)	요기요 (가게배달)	쿠방이츠	평균
상승한 업체	6.9%	5.8%	63.6%	4.7%	3.4%	16.9%
하락한 업체	8.9%	10.9%	17.9%	5.5%	14.2%	11.5%
동일한 업체	84.2%	83.3%	18.5%	89.8%	82.4%	71.6%

동일 음식업체의 배달비를 7월과 비교한 결과, 배달서비스별 배달앱 내 배달비는 7월에 비해 평균 16.9% 업체가 가격을 올렸고, 11.5%의 업체는 가격을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5월 대비 7월의 배달비 하락율이 6.5%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약 2배 가량의 업체가 가격을 내린 것이다.

다만 7월 대비 9월의 배민1(알뜰배달)의 배달비 상승률이 63.6%였다. 6월 대비 8월에도 배민1(알뜰배달)의 배달비 상승이 72.7%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었는데, 배민1(알뜰배달) 도입으로 주어진 할인혜택 등이 8, 9월이 되면서 종료되어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배민1(알뜰배달)의 배달비 상승폭은 1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상승액 자체가 큰 편은 아니지만, 2km 미만의 최빈 배달비 평균이 2,550원대임을 고려하면, 상승의 체감도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배달비 경쟁 가속화되며 묶음 배달 서비스 확대,

소비자 배달비 부담 경감 효과는 미비

공정한 경쟁을 통한 합리적 배달비 형성 기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배달 등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한 2조 3,509억원으로 7월 들어 처음으로 2조 3천억원대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배달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배달앱들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할인 혜택 증가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배달의민족에서 배달 노선을 비슷한 주문을 다른 주문과 함께 배달하는 알뜰배달을 선보인 이후, 6월부터는 단건배달만 하던 쿠방이츠에서도 세이브배달로 묶음배달을 시작했으며, 8월에는 요기요 익스프레스가 요기배달(한집배달, 실속배달)로 변경되어 배달앱 3사의 묶음서비스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묶음 배달 서비스의 배달비가 기존의 묶음 배달 요금에 비해 낮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배달비 경감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달비는 음식업체가 최종 결정할 요금을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으나 배달서비스 가격에 여러 영향요인이 투명하지 않아 배달비 인하 방법이나 적정성에 대해 소비자가 판단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는 배달 및 배달서비스가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끝.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